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67호(구387호) 2008. 6. 15.(격주간)

전 세계로 생중계된 '특별 은사집회'



▲ 무릎 슬개골 골절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김용녀 권사 (86세, 청주)

다시 한 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감동의 물결로 이어졌다. 만민중앙교회는 5월 30일, 본당에서 치러진 금요철야 예배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한 '특별 은사집회'로 열어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매월 마지막 금요철야 예배(매주 금요일 밤 11시-새벽 4시) 2부 시간에 은사집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재록 목사에게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월에는 이재록 목사가 직접 해주는 안수 기도가 예정된 '특별 은사집회'로 열린 것이다. 국내는 물론 아프리카,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 많은 이가 사모함으로 참석해 500여 종의 질병, 1,659명이 환자 접수를 했다. 당일에도 170여 건이 넘는 간증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후에도 직접 방문, 전화, 서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간증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집회는 GCN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생중계됐다(관련기사 4면).

노르웨이 '다겐매거진'에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특집 기사 다뤄

노르웨이의 기독 일간잡지 'DagenMagazinet' (다겐매거진)은 5월 31일자에 <제5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소식을 특집 기사로 다뤘다.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는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주최로 기독 의사들이 기도를 통한 치유 사례를 의학적 자료로 입증하는 모임이다. 제5회 콘퍼런스는 5월 15, 16일에 노르웨이 트론하임에서 열렸다. '다겐매거진'은 콘퍼런스를 후원하는 대한민국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WCDN 설립자 이재록 목사를 소개하며,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해외 연합대성회와 만민 TV 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고 게재했다. 또한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예니스 아브 라나 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성도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벨기에 선교사 파송식

우리 교회는 6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때 벨기에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파송된 노현숙 선교사는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유럽 '십자가의 도 캠프'를 통해 성령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부흥하는 유럽 교회들을 보면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됐다. 우리 교회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1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아산만민교회 창립예배

국내 지교회인 아산만민교회(충남 아산시 권곡동 소재)는 6월 12일 오후 3시,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담임 오환준 교육전도사는 부평 지성전과 검단 지성전을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아산시 복음화를 위해 아산만민교회를 개척한 뒤 이번에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다.

칼럼 Column

사랑의 기도

무신론자이던 저는 칠 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시골에서 올라온 둘째 누님이 "동생, 꼭 가보고 싶은 기도원이 있으니 안내 좀 해주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내게 부탁할까 싶어서 길 안내를 해드렸지요. 그곳에 도착해서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단 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뒤 뜻밖의 사실을 알았는데, 둘째 누님이 저를 위해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님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하신 대로 영혼을 위한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글 • 이재록 목사 경향신문 연재 '길' 칼럼에서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2부 · 오전 11:30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협 100072-52-061722
- 우체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령의 능력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1-4)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행 1:4-5, 요 14:16), 이 약속대로 임한 보혜사 성령은 믿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돕는 영’으로 역사합니다. 가정교사처럼 진리를 가르치고, 어머니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힘을 주지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 문에 다다를 때까지 방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영의 사람, 온 영(살전 5:23)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간절히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8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13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해도 얼마나 성령을 찾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도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컨대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성령 충만 정도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 주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되고, 간절히 사모하여 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이 있으면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충만함을 줍니다. 팔팔 끓는 물도 불을 끄면 접차 식으므로 불을 계속 지펴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도움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중심의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충만함을 잃어가면서 영을 추구하던 마음이 다시금 육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할 뿐 아니라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2.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물론 자신도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엔 잘되지 않아도 노력해 나가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도 떠올려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며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도우면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 때문입니다(롬 8:27).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능력도 줍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기록한 것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지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고자 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음성이나 주관, 감동으로 그 뜻과 의미를 깨우쳐 주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며 성령의 임재와 주님 부활에 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을 깨닫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구원의 도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배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에서 ‘진정’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임할 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성령은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떠올려 줍니다. 마가복음 13:11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즉 성령은 전도나 심방, 상담할 때에 상대의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무한합니다. 선으로 생각하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받았어도 그 능력을 받지 못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엔진을 이용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엔진을 켜서 신나게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가기에 매우 멀고 힘든 길도 짧은 시간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3.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10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닫는 마음’이란 영의 마음, 온 영(살전 5:23)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영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6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13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성령은 음성이나 주관으로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순종하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빛 가운데 행하지요.

마음에 있는 육의 속성을 벗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속속들이 배어 있는 육의 속성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벗어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육의 속성을 소멸하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은 불로 육의 속성을 태워 줍니다.

이를 통해 육의 속성이 사라지는 만큼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도 사라집니다. 자존심이라는 육의 속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진 사람은 다른 이가 자신을 섬기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는 육신의 생각이 들지도 않고, 불편한 기색도 없으며, 말투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육의 속성 하나만 벗어도 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육의 속성과 더 채워야 할 영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 줍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은 신속하게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참 자녀, 곧 하나님의 값진 열매로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주님의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친히 양육하며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녕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5월 30일 특별 은사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 가운데 생생한 증언을 들려줄 주인공들을 만났다. 이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내는 응답의 조건을 찾아본다.

“20년 동안 안 들리던 왼쪽 귀가 똑똑히 들려요” 고지마 히토미 (일본 오사카)



20년 전에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돌발성 난청이며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치료해도 소용 없었고, 결국 청력을 상실했지요. 그 뒤 2주에 걸쳐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워 토하기를 반복했고, 더 이상 운전도 하지 못하고 자전거도 탈 수 없었습니다. 매미 소리처럼 귀가 울려 1년여 동안은 잠이 이루지 못했지요.

그런데 지난 5월 초, 마이즈루 만민교회 손수건 (행 19:11-12) 집회에 참석해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 20년간 전혀 들리지 않던 왼쪽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온전히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왔고, 아침 금식과 화목제물로 정성껏 준비했지요. 그러던

중, 꿈을 꾸게 됐는데 당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와 귀뿐만 아니라 온몸을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한국에 와서 두 주간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 기도를 받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원한 기운이 퍼져 내려왔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오른쪽 귀를 막고 있어도 소리가 아주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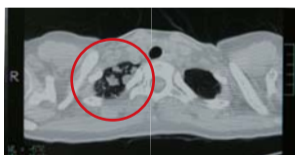
“활동성 폐결핵이 치료됐어요” 정리라 (14-2교구, 고3선교회)

지난 4월 23일 CT 촬영 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나와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에서 갑자기 어깨 통증이 오는데 조금만 숨을 크게 들이쉬어도 고통스럽고 말하려면 ‘악’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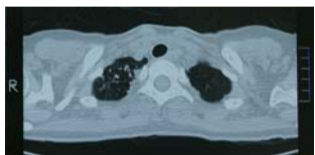


4월 25일 금요일예배 때 당회장님의 전체 환자기도를 받은 뒤 통증은 깨끗이 사라졌지만 질병이 온 이유를 찾기 위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가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통회자복했지요.

5월 30일 특별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께 안수 기도를 받은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현저히 호전됐다며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 상부 폐 부분에 활동성 폐결핵 소견



급속히 호전 된 소견

“파킨슨 병도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정연완 (31교구, 5-1남선교회)



약 4년 전, 말이 잘 안 나오고 온몸에 떨림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명은 파킨슨 병이었고, 특별 은사집회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약을 끊자 증상은 더 심해졌지요. 믿음으로 이겨 내며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딸(정애경 집사)이 건네 준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여러 번 듣고, 『천국』과 『지옥』 책자를 읽으면서 믿음을 더욱 갖게 됐지요.

드디어 특별 은사집회가 시작됐고, 회개기도 시간부터 제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당회장님이 전체 환자기도를 할 때 어지러움과 떨림 증상이 많이 사라져 자유자재로 걷고 손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보라’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젠홍 (프랑스 파리)

올해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만난 위마리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의 사역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어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천국』(상·하), 『지옥』, 『믿음의 분량』, 『권능』 일곱 권의 이재록 목사 저서를 구입해 읽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이재록 목사는 신실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저는 평소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기독교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며 버릴 수 있는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는 그 이유와 방법 등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지요.

위마리 목사가 5월 말에 한국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 뜻을 알고자 기도를 한 뒤 성경을 펴니 “가서 보라”(막 6:38)는 문구가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출발하기 3일 전,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알고 싶어 인터넷 검색을 했지요. 이단 정죄 글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책을 통해 받은 은혜와 확신이 있었고, ‘큰 종은 크게 핍박받는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장 컴퓨터를 꺼버렸지요. 5월 26일, 한국에 온 저는 만민중앙교회 곳곳에서 이재록 목사를 통해 펼치는 하나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와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성도들의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고, 이는 이재록 목사가 그만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월 30일, 특별 은사집회 때 환자 접수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지요. ‘믿음’이란 설교로 확실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1,600여 명의 환자를 일일이 마음 다해 기도해 주는 이재록 목사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순서가 되어 기도를 받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코가 뺨 뚫리며 시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심한 감기로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했는데 온몸이 가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와 근시도 치료됐지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보라” 하셨는지 충분히 알게 된 한국 방문. 하나님 사랑과 천국 소망을 가득 안고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고통에 매여 있던 온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송철현 (4교구, 2-5남선교회)

저는 29세 때 지붕 위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6세 때에는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쳐 몸 오른쪽 절반을 제대로 쓰지 못했지요. 다리를 찢뜩거리며 걷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일상 오른쪽 어깨와 팔다리가 쭈시는 고통 속에 살았지요. 또한 7년 전에는 오른손이 쥐밧에 걸려 새끼손가락이 부러진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그 손가락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은사집회에 참석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뜨거운 기운이 제 몸에 임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구부러지고 오른쪽 팔다리 통증이 간데없이 사라져 온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진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강한 성령의 역사

응답과 치료의 생생한 현장을 목도하다



환자로 교회 문턱에 들어서도 건강한 주의 일꾼이 되는 곳이 만민중앙교회이다. 생명력 있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치료의 역사가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기 까닭이다. 때문에 만민중앙교회에는 환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치료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한 농아나 휠체어에 의지한 중증 환자를 볼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안타까워했다. 이런 이유로 설교 중에 5월말 은사집회 때에는 직접 안수 기도해 줄 것을 발표했고, 외부에 홍보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지교회와 타교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환자가 몰려 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별 은사집회,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5월 30일, 만민중앙교회 본당은 오후부터 집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본당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는 2성전, 3성전까지 가득 메웠고, 휠체어와 지팡이를 의지한 이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오

후 3시부터 10시까지 신경계, 호흡기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순환기계, 정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관련 질병 500여 종 1,659명이 환자 접수를 마쳤다. 한편, 특별 은사집회를 위한 준비집회라 할 수 있는 만민기도원 집회(감사: 이복남 원장)는 많은 환자가 참석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와 통회자복을 하는 시간이었다.

단을 가득 메운 간증 행렬

1부 예배에는 이재록 목사가 “믿음”(막 9:2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짧은 시간에 환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필수 코스였다. 예배가 마치고 2부가 시작되자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권능을 체험한 사례들을 담은 영상자료가 상영되고, 회개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찬양과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성도들의 힘찬 박수는 응답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가득했다.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마친 뒤 단에서 내려온 이재록 목사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다. 1,659명의 환자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었다. 안수 기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철야를 마치기 20분 전인 3시 40분경에 끝이 났다.

아랫단은 어느덧 170여 명의 간증자로 가득 메워지고 그들은 성령의 새 술에 취한 듯 흥조를 띤 채 간증했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다. 환부가 시원했다. 치료를 확신했다...’며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행복을 느꼈다.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3/2 이상은 간증하지 못한 채 단을 내려가야 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다

사실상 간증한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비염, 정신분열증, 대상포진, 혈액순환 장애, 축농증, 교통사고 후유증, 골다공증, 가스중독 후유증, 백내장, 언어장애, 중풍, 각막이영양증, 손발 저림, 허리 디스크, 이명, 수전증, 풍치, 신진대사 저하, 성대 결절, 안구 건조증, 담석증, 견비통, 심장병, 신경성 위장장애, 대장암, 인대 손상, 유방암, 알레르기성 피부염, 자궁 근종, 난소 물혹, 습관성 유산, A형 간염, 황달, 간질, 기관지 천식, 척추측만증, 식도염, 폐결핵 등 다양한 질병이 치료됐다. 지금도 간증하는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별 은사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는 말씀이 참임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축복의 현장이었다.

글 · 임정미

manminnews@hotmail.com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가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51)805-1363,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1-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2085-7003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284-3133, 010-2629-8275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452-7443, 011-608-3037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3)223-9991, 018-202-15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853-0675, 011-671-7191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33)251-1144, 010-7770-20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766-1535, 010-9108-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637-0271, 010-7733-3731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41-3790, 017-334-7750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64)745-0675, 010-2468-2251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2)556-8517~8, 019-234-3719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995-9951, 011-177-1217, 011-719-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31)485-9143, 017-366-59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2)863-9857, 011-287-7369
- 일산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2)995-9951, 011-177-1217, 011-719-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1)781-9830, 017-355-1928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31)905-2419, 019-276-101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552-7397, 010-2290-1856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2)489-3766, 010-6712-207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32)528-3830, 010-7720-7770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1)202-8480, 010-2213-2073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635-9103, 016-718-7458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840-2906, 019-251-3149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